

시애틀 드림교회 Seattle Dream Church

초대교회의 역사

2019 09 17



시애틀 드림교회의 2019 년 상반기 Just Show Up 북클럽에서 읽은 책은 FF 부르스의 <초대교회의 역사>였다. 지난 6 개월 이상 매주 주일예배 후에 진행하였으므로 성도대부분이 참석하였고, 이따금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여 알찬시간이 되었다. 나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독서모임은 40 분을 넘지 않으려 했지만, 때로는 길게 이어지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신학서적을 택하는데 부담이 있었지만, 시간마다 모임을 인도하는 김애숙 사모의 정리와 인도로 더욱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토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요한 지명과 인명을 한번 읽어보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개괄하는 것만으로도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 층 더 넓어졌다.

신약성서이후 2000 년간 교회역사가 진행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를 통해 몸된 교회를 다음더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경자체를 공부하는것도 버거워하며 우리 선배들의 유산인 교회사를 공부하는 데 게을렀다. 이번에 북클럽에서 다룬 책은 2000 년 교회사의 첫부분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사였다.

부르스는 바울신학의 대가다. 대학자가 쓴 녹녹치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이후 초기 기독교 발전과 배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부르스의 <바울>을 읽은 것과 비교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바울의 텐트메이킹에 대해서, 과거 염소털로 짠 양탄자 재질의 천막 제조업으로설명했던 부르스가 최근 연구동향을 받아들여, 바울의 자비량을 가죽텐트 만드는 험한 작업일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털뭉치를 가지고 양탄자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똥, 오줌 냄새나는 가죽공장에서 젖은 가죽 무더기를 옮기느라 온 몸이 구정물에 젖은 갓바치 바울의 모습은 바울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이런 모습은 고린도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왜 그토록 자주 일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다음 책으로는 이어서 중세교회사를 읽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중세교회사는 북클럽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중세와 종교개혁, 근세와 현대 교회사까지 정리된 목록이 제공된다면 성도들의 교회의 역사를 보는 안목이 크게 달라지고 성숙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에 초대교회 역사를 온 교인이 함께 공부하는 좋은 기회를 허락한 북클럽에 감사드린다.

시애틀 드림교회

김범수 목사